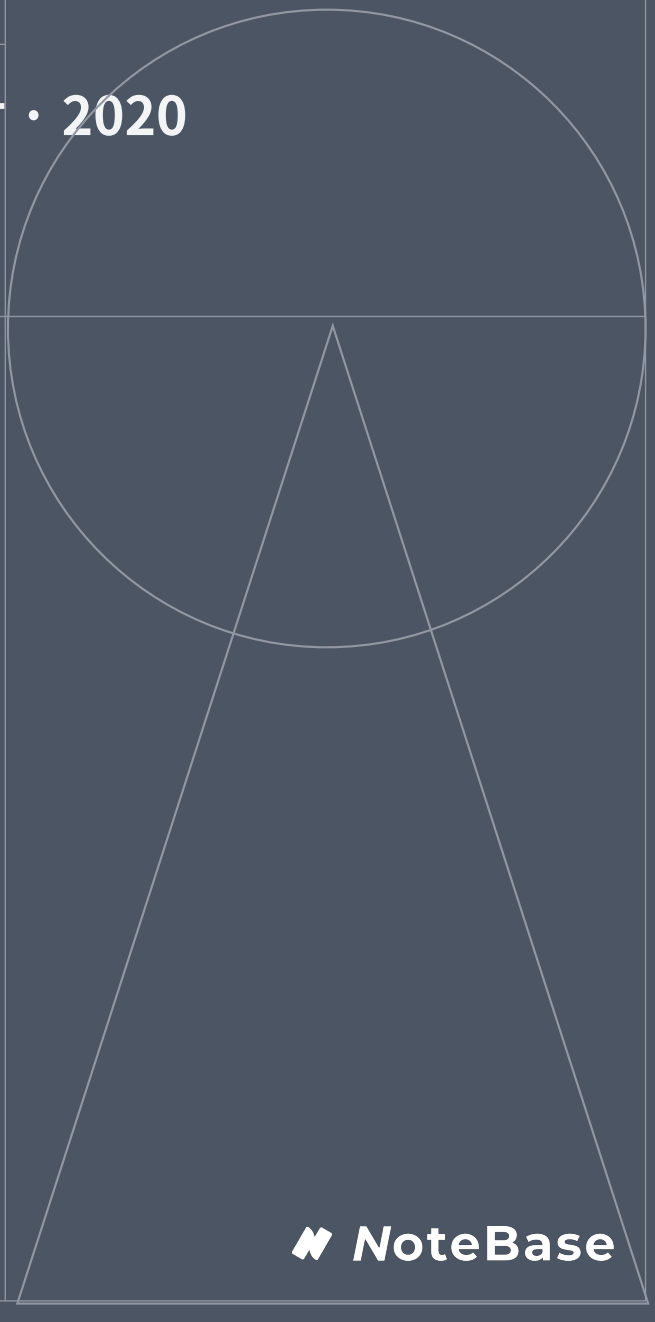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0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0

공무원/국가직/7급 · 심리학 · 2020

문 1. 다음과 같이 주장하는 심리학의 분야는?

자연 선택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보존되어 온 능력의 적응적 가치라는 점에서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설명한다.

① 인지신경과학

② 진화심리학

③ 비교문화심리학

④ 긍정심리학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자연선택, 오랜 진화 과정, 적응적 가치라는 키워드를 보고 진화심리학을 식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인지신경과학은 기억, 지각, 언어 같은 인지 과정이 뇌의 어떤 신경 기제로 작동하는지를 다루는 분야이다.
진화심리학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자연선택의 산물로 보고, 생존과 번식에 유리했던 심리 기제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를 설명하는 분야이다.
비교문화심리학은 문화권에 따라 사고, 정서, 행동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비교하는 분야이다.
긍정심리학은 행복, 강점, 회복탄력성, 삶의 의미처럼 인간의 긍정적 기능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인지신경과학은 마음과 행동의 신경학적 기초를 밝히는 분야이므로 자연선택에 의해 보존된 적응적 기능을 설명의 중심에 두지 않는다. 틀린 표현은 '자연 선택으로 오랜 시간에 걸쳐 보존되어 온 능력의 적응적 가치'를 인지신경과학에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인지신경과학은 인지 과정의 뇌 기제를 설명하는 분야이다.
② O: 자연선택, 오랜 진화 과정, 적응적 가치라는 표현은 진화심리학의 전형적인 설명 방식이다. 인간의 심리 기제를 환경 적응의 결과로 본다는 점에서 제시문과 일치한다.
③ X: 비교문화심리학은 문화 간 차이와 보편성을 비교하는 분야이므로 적응적 가치나 자연선택이 핵심 기준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진화적 설명을 비교문화심리학에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비교문화심리학은 문화가 심리와 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하는 분야이다.
④ X: 긍정심리학은 행복, 강점, 몰입, 웰빙 같은 긍정적 심리 기능을 다루는 분야이므로 진화적 적응 설명과는 초점이 다르다. 틀린 표현은 자연선택에 의한 적응 설명을 긍정심리학에 연결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긍정심리학은 인간의 강점과 행복 증진을 연구하는 분야이다.

오답 포인트

'적응'이라는 말을 일상적 의미의 적응이나 긍정적 성장으로 읽으면 ④와 헷갈릴 수 있다. 이 문항의 적응은 진화론적 적응, 즉 생존과 번식에 유리해 선택된 심리 기제를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자연선택, 진화, 적응적 가치, 생존, 번식이 나오면 진화심리학을 먼저 떠올린다. 뇌 기전이면 인지신경과학, 문화 비교이면 비교문화심리학, 행복과 강점이면 긍정심리학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진화심리학 = 마음과 행동을 자연선택의 적응 산물로 설명하는 분야이다.

NoteBase

문 2. H가 사용한 전략은?

H는 수년간 취업 시험을 준비해왔다. 그런데 예정된 일정을 일주일 남짓 앞두고, 기존의 시험 날짜가 약 한 달 정도 더 연기되었다. 이 공지를 접한 H는 처음에는 매우 짜증이 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 그러나 이후 “한 달 정도 동안 더 잘 준비하고 남들보다 알뜰하게 시간을 활용하자!”라고 속으로 생각했다.

① 사회적 지지(social support)

② 되새김(rumination)

③ 유머(humor)

④ 재평정(reappraisal)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스트레스 상황에서 사건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했는지를 보고 대처 전략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사례 정리

- H는 시험 일정 연기 공지를 접한 직후 짜증과 스트레스를 느꼈다.
- 이후 한 달의 추가 시간을 더 잘 준비할 기회로 받아들였다.
- 판단의 핵심은 감정을 반복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바꾸어 해석했다는 점이다.

핵심 개념

- 재평정은 스트레스 사건의 의미를 다시 해석하여 정서 반응을 조절하는 전략이다.
- 적용 요건은 같은 사건을 더 유리하거나 감당 가능한 의미로 다시 보는 데 있다.

적용 기준

이 사례에서는 시험 연기라는 동일한 사건 자체보다 그 사건을 어떤 의미로 바꾸어 해석했는지를 본다. 핵심은 처음의 부정 정서 이후에 '더 잘 준비할 시간'이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는 점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사회적 지지는 타인에게 정서적 또는 도구적 도움을 받는 전략이다. 사례에는 주변 사람의 도움을 구하거나 지지를 받은 내용이 없다.
- 틀린 표현은 '사회적 지지'이다. 올바르게는 타인의 도움을 활용한 것이 아니라 상황의 의미를 바꾼 재평정이다.

② X
- 되새김은 부정적 사건과 감정을 반복적으로 곱씹는 반응이다. H는 짜증을 계속 반복한 것이 아니라 이후 시험 연기를 준비 기회로 재해석했다.
- 틀린 표현은 '되새김'이다. 올바르게는 부정 정서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사건의 의미를 바꾼 재평정이다.

③ X
- 유머는 스트레스 상황을 웃음이나 익살로 전환하여 긴장을 낮추는 전략이다. 사례에는 농담하거나 우습게 받아들이는 요소가 없다.
- 틀린 표현은 '유머'이다. 올바르게는 웃음으로 넘긴 것이 아니라 시험 연기를 유리한 기회로 본 재평정이다.

④ O
- 재평정은 같은 사건을 덜 위협적이거나 더 유익한 의미로 다시 보는 인지적 대처이다. H는 시험 연기를 손해로만 보지 않고 '한 달 더 잘 준비할 시간'으로 해석했으므로 재평정에 해당한다.

오답 포인트

처음에 짜증과 스트레스를 느꼈다는 문장만 보고 ② 되새김으로 넘어가기 쉽다. 그러나 분류 기준은 초기 감정이 아니라 그 다음에 어떤 인지적 처리를 했는지이며, 이 사례의 결정 단서는 '더 잘 준비할 시간으로 해석'한 부분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사례형 대처 전략 문제는 사건 직후의 감정보다 이후 반응을 본다. 타인에게 도움을 구하면 사회적 지지이고, 부정 감정을 반복하면 되새김이며, 웃음으로 전환하면 유머이고, 사건의 의미를 바꾸면 재평정이다.

암기 포인트

의미를 바꾸면 재평정이고, 감정을 곱씹으면 되새김이다.

NoteBase

문 3. 다음과 같이 일반적이고 모호한 성격묘사를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는 현상은?

대학생 300명을 대상으로 5점 척도 [1~5]로 이루어진 10문항의 설문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전체 평균값은 2.8이었지만, 아래 세 문항에 대한 평균값은 4.2였다.
◯ 당신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좋아하고 인정해 주기를 바라는 욕구가 있다.
◯ 당신은 자신에 대해서 종종 비판적인 경향을 보인다.
◯ 당신은 아직 자신의 강점으로 발휘하지 못한 많은 능력을 지니고 있다.

① 후광 효과(halo effect)
② 스트룹 효과(Stroop effect)
③ 바넘 효과(Barnum effect)
④ 자기 중심성(egocentrism)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모호하고 일반적인 성격 묘사를 자신에게 정확히 들어맞는다고 받아들이는 바넘 효과를 다른 심리학 개념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후광 효과는 한 가지 두드러진 인상 때문에 다른 특성 평가까지 전반적으로 끌려가는 현상이다. 스트룹 효과는 단어의 의미와 색 이름 반응이 충돌할 때 반응이 지연되거나 간섭이 생기는 현상이다. 바넘 효과는 누구에게나 그럴듯하게 적용되는 모호하고 일반적인 성격 설명을 자신에게 특히 잘 맞는다고 믿는 현상이다. 자기 중심성은 자신의 관점이나 정보에 지나치게 매여 타인의 관점과 분리해서 보지 못하는 경향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후광 효과는 한 특성의 긍정적 또는 부정적 인상이 다른 특성 판단까지 번지는 현상이다. 이 문항의 핵심은 인상 일반화가 아니라 모호한 성격 묘사를 자기에게 맞는다고 수용하는 점이다. 틀린 표현은 "모호한 성격묘사를 자신에게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에 후광 효과를 대응시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한 가지 두드러진 인상이 다른 평가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후광 효과이다.
② X: 스트룹 효과는 예를 들어 '빨강'이라는 글자가 파란색 잉크로 제시될 때 잉크 색 이름 말하기가 방해되는 간섭 현상이다. 성격검사 결과를 자기 기술로 받아들이는 현상과는 무관하다. 틀린 표현은 "성격검사 문항의 자기 적용"을 스트룹 효과로 보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자동화된 읽기 반응이 색 명명 과제를 방해하는 경우"가 스트룹 효과이다.
③ O: 바넘 효과는 일반적이고 다수에게 해당할 수 있는 진술을 자신만의 정확한 성격 설명처럼 받아들이는 현상이다. 제시문에서 전체 평균은 2.8이지만 일부 문항 평균이 4.2로 높고, 그 모호한 긍정 문항들을 자신에게 맞는다고 판단하는 점이 바넘 효과에 해당한다.
④ X: 자기 중심성은 자신의 시각을 중심으로 사고하여 다른 사람의 관점이나 정보 상태를 충분히 분리하지 못하는 경향이다. 이 문항은 관점 조정 실패가 아니라 성격 진술의 보편성을 개인적 정확성으로 오인하는 현상이다. 틀린 표현은 "모호한 성격 진술의 자기 수용"을 자기 중심성으로 보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타인의 관점과 자신의 관점을 구분하지 못하는 경향"이 자기 중심성이다.

오답 포인트

수험생은 ①의 후광 효과처럼 '긍정적 인상'이 들어가면 쉽게 끌리기 쉽다. 그러나 후광 효과는 한 특성이 다른 평가를 덮는 현상이고, 바넘 효과는 누구에게나 통할 모호한 문장을 자기에게만 정확한 설명처럼 받아들이는 현상이라는 점이 다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시문에 '누구에게나 그럴듯한 성격 설명', '모호한 자기 기술', '자신에게 잘 맞는다고 느낌'이 나오면 먼저 바넘 효과를 떠올리면 된다. 반대로 한 인상이 다른 평가를 좌우하면 후광 효과, 과제 간섭이 핵심이면 스트룹 효과, 관점 분리가 안 되면 자기 중심성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바넘 효과는 모호한 성격 설명의 자기 적중감이고, 후광 효과는 인상 일반화이며, 스트룹 효과는 반응 간섭이고, 자기 중심성은 관점 고착이다.

NoteBase

문 4. 스턴버그(R. Sternberg)가 제안한 사랑의 삼각형 모형(triangular theory of love)에 속하는 요인이 아닌 것은?

① 열정(passion)
② 친밀성(intimacy)
③ 헌신(commitment)
④ 유사성(similarity)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모형을 이루는 세 요소인 친밀성, 열정, 헌신을 정확히 구별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스턴버그의 사랑의 삼각형 모형은 친밀성, 열정, 헌신의 세 요소로 사랑을 설명한다.
친밀성은 정서적 가까움과 유대감이다.
열정은 신체적 끌림과 흥분, 관계를 향한 강한 동기이다.
헌신은 사랑하기로 한 결정과 그 관계를 유지하려는 의지이다.

선지별 해설

1번 O: 열정은 사랑의 삼각형 모형을 이루는 한 축이다. 신체적 매력, 각성, 강한 끌림이 여기에 해당한다.
2번 O: 친밀성은 사랑의 삼각형 모형을 이루는 한 축이다. 정서적 친밀감, 이해, 신뢰, 유대감을 뜻한다.
3번 O: 헌신은 사랑의 삼각형 모형을 이루는 한 축이다. 사랑하기로 한 결정과 관계를 지속하려는 책임감을 포함한다.
4번 X: 틀린 표현은 '유사성(similarity)'이 삼각형 모형의 요소라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유사성은 대인매력이나 관계 형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인이지만, 스턴버그가 제시한 세 요소는 친밀성, 열정, 헌신이다.

오답 포인트

유사성은 실제로 친밀한 관계 형성에 자주 함께 언급되는 개념이어서 사랑 이론의 구성요소처럼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반 변인이 아니라 스턴버그 모형의 공식 구성요소 세 가지를 묻는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스턴버그 문항은 먼저 세 요소를 친밀성, 열정, 헌신으로 고정한 뒤, 선지가 이 셋 중 하나인지 아니면 관계 관련 다른 변인인지를 구분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스턴버그의 사랑 = 친밀성 + 열정 + 헌신이다.

NoteBase

문 5. 장기기억의 기억 현상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앞서 학습한 정보가 나중 학습한 정보의 기억을 방해하는 것을 순행 간섭(proactive interference)이라고 한다.

② 쇠잔 이론(decay theory)에 따르면 정보가 장기기억에 부호화되었더라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억 흔적이 사라져서 인출 실패가 발생한다.

③ 부호화 특수성 원리(encoding specificity principle)에 따르면 부호화 맥락과 인출 맥락의 일치보다는 부호화할 때의 특수한 맥락이 정보의 기억에 더 중요하다.

④ 상태 의존적 학습(state dependent learning)에 따르면 학습할 때와 인출할 때의 신체 상태가 유사할수록 장기기억의 인출이 유리해진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장기기억의 망각 원인과 인출 단서 이론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순행 간섭은 먼저 학습한 정보가 나중 정보의 학습이나 인출을 방해하는 현상이다.
쇠잔 이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기억 흔적이 약해져 망각이 생긴다고 보는 설명이다.
부호화 특수성 원리는 정보를 저장할 때의 단서와 인출할 때의 단서가 일치할수록 회상이 잘된다는 원리이다.
상태 의존적 학습은 학습 시의 신체적·생리적 상태가 인출 시에도 비슷할 때 기억이 더 잘 난다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앞서 학습한 정보가 나중에 학습한 정보의 기억을 방해하는 것은 순행 간섭의 정의와 일치한다.

② O
쇠잔 이론은 시간이 흐르면서 기억 흔적이 약해져 인출 실패가 생긴다고 설명하므로 선지의 취지가 맞다.

③ X
틀린 부분은 "부호화 맥락과 인출 맥락의 일치보다는 부호화할 때의 특수한 맥락이 더 중요하다"는 표현이다.
부호화 특수성 원리는 저장 당시의 단서와 인출 당시의 단서가 서로 일치할수록 기억이 잘 난다고 본다.
올바르게는 "부호화 맥락과 인출 맥락의 일치가 정보 인출에 중요하다"가 된다.

④ O
상태 의존적 학습은 학습할 때와 인출할 때의 신체 상태가 유사할수록 인출이 쉬워진다고 보므로 선지가 맞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③은 부호화 특수성 원리의 핵심을 '부호화 시점의 특수한 맥락 자체'로 바꾸어 놓은 함정이다. 이 이론의 핵심은 특정 맥락의 존재 자체가 아니라 학습 시 단서와 인출 시 단서의 일치 여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억 이론 문제에서는 먼저 방해 요인인지, 시간 경과에 따른 쇠퇴인지, 단서 일치 효과인지, 상태 일치 효과인지를 구분하면 된다. 특히 부호화 특수성은 '같은 단서가 다시 주어지는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부호화 특수성은 특수한 맥락 자체가 아니라 부호화 단서와 인출 단서의 일치가 핵심이다.

NoteBase

문 6. 에릭슨(E. Erikson)의 심리사회발달 단계와 그에 관한 내용이 옳지 않은 것은?

① 신뢰 대 불신 - 양육자에 대한 믿음을 형성하는 것
② 근면성 대 열등감 - 신체적, 사회적, 학업적 기술을 발달시키는 것
③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 가족, 직업, 사회와 관련된 인생의 목표를 수행하는 것
④ 통합 대 절망 - 자신의 인생을 되돌아보며 수용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것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에릭슨의 심리사회발달 8단계에서 각 단계의 핵심 과업을 정확한 연령대와 연결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신뢰 대 불신: 영아기에 양육자와의 일관된 돌봄을 통해 기본적 신뢰를 형성하는 단계이다.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유아기에 스스로 선택하고 통제하는 경험을 통해 자율성을 키우는 단계이다.
근면성 대 열등감: 학령기에 학업, 또래관계, 과업 수행을 통해 유능감을 발달시키는 단계이다.
통합 대 절망: 노년기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수용과 의미를 통합하는 단계이다.
생산성 대 침체: 성인기에 가족, 직업, 사회에 기여하며 다음 세대를 돌보는 목표를 수행하는 단계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신뢰 대 불신은 영아기의 첫 단계로, 양육자가 일관되게 욕구를 충족해 줄 때 타인과 세계에 대한 기본적 믿음을 형성한다.
② O: 근면성 대 열등감은 학령기 단계로, 공부와 또래 활동을 통해 신체적, 사회적, 학업적 기술을 익히며 유능감을 키운다.
③ X: 틀린 부분은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 - 가족, 직업, 사회와 관련된 인생의 목표를 수행하는 것'이다. 자율성 대 수치심과 의심은 유아기에 배변훈련, 이동, 선택 같은 자기통제를 배우는 단계이다. 가족, 직업, 사회와 관련된 인생의 목표를 수행하는 과업은 생산성 대 침체 단계에 해당한다.
④ O: 통합 대 절망은 노년기의 마지막 단계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수용감과 만족감을 얻으면 자아통합에 이르고 그렇지 못하면 절망을 느끼게 된다.

오답 포인트

③은 '자율성'이라는 단어 때문에 성인기의 자기주도적 삶과 연결하기 쉽지만, 에릭슨의 자율성은 유아기의 자기통제와 독립성 형성을 뜻한다. 성인기의 사회적 기여와 인생 목표 수행은 생산성 대 침체로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에릭슨 문항은 단계명만 보지 않고 연령대와 핵심 과업을 함께 묶어 판단하면 된다. 영아기=신뢰, 유아기=자율성, 학령기=근면성, 성인기=생산성, 노년기=통합으로 연결하면 단계 바꿔치기 선지를 걸러낼 수 있다.

암기 포인트

유아기는 자율성, 성인기는 생산성, 노년기는 통합이라는 축으로 기억하면 단계 혼동을 줄일 수 있다.

NoteBase

문 7. 집단사고(groupthink)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르면?

ㄱ. 익명의 상황에서 충동적인 집단행동의 가능성이 커진다.
ㄴ. 집단응집력에 대한 강한 욕구가 대안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압도한다.
ㄷ. 권위적 리더로 인해 이탈자에 대한 사회적 압력이 높다.
ㄹ. 효과의 법칙(law of effects)에 근거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진다.

① ㄱ, ㄴ
② ㄴ, ㄷ
③ ㄷ, ㄹ
④ ㄱ, ㄴ, ㄷ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집단사고의 핵심 특징과 유사 개념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집단사고는 집단의 응집성 유지 욕구가 커져 대안을 현실적으로 검토하지 못하고 만장일치를 추구하는 의사결정 왜곡이다.
탈개인화는 익명성 속에서 자기통제가 약해져 충동적 행동이 커지는 현상이다.
효과의 법칙은 만족스러운 결과를 낳은 반응이 반복되기 쉬워진다는 학습 원리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ㄴ은 옳지만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ㄱ의 '익명의 상황에서 충동적인 집단행동'은 집단사고가 아니라 탈개인화의 설명이다. 옳은 조합은 ㄴ, ㄷ이므로 ②가 맞다.
② O: ㄴ과 ㄷ이 모두 옳아 정답이다. ㄴ은 응집력에 대한 강한 욕구가 대안에 대한 현실적 평가를 압도한다는 내용으로 집단사고의 정의에 맞다. ㄷ은 권위적 리더 아래에서 이견 제시가 억제되고 이탈자에게 사회적 압력이 커진다는 내용으로 집단사고의 전형적 양상을 설명한다.
③ X: ㄷ은 옳지만 ㄹ이 틀려서 오답이다. ㄹ의 '효과의 법칙'은 손다이크의 학습 이론으로, 집단사고의 의사결정 과정과는 관련이 없다. 올바르게는 집단사고는 응집성, 동조 압력, 비판적 사고의 약화와 관련된다.
④ X: ㄴ과 ㄷ은 옳지만 ㄱ이 틀려서 오답이다. ㄱ의 핵심 오류는 '익명성'과 '충동성'을 집단사고의 특징처럼 서술한 점이다. 올바르게는 익명성이 아니라 응집성 과잉과 이견 억제가 집단사고의 핵심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ㄱ의 익명성, 충동성은 탈개인화의 키워드인데 이를 집단사고와 혼동하기 쉽다. ㄹ도 '의사결정'이라는 말 때문에 관련 있어 보이지만 실제로는 학습의 효과의 법칙을 끌어온 무관한 선지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집단사고 문제는 먼저 응집성, 만장일치 압력, 대안의 비판적 검토 결여, 이견 억제 같은 단어가 있는지 본다. 익명성, 충동성, 책임감 약화가 나오면 탈개인화로, 보상 결과에 따른 반응 강화가 나오면 효과의 법칙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집단사고는 응집성 과잉과 현실검토 결여이고, 익명성에 따른 충동성은 탈개인화이며, 효과의 법칙은 학습 원리이다.

NoteBase

문 8. 빈칸에 들어갈 용어를 바르게 연결한 것은?

(㉠)은 특정한 자극을 (㉡)%의 확률로 탐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극 강도를 말하며, (㉢)은 두 자극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의 확률로 탐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차이를 말한다.

① ㉠: 절대역, ㉡: 50, ㉢: 차이역, ㉣: 50

② ㉠: 절대역, ㉡: 50, ㉢: 상대역, ㉣: 50

③ ㉠: 절대역, ㉡: 100, ㉢: 상대역, ㉣: 50

④ ㉠: 상대역, ㉡: 100, ㉢: 차이역, ㉣: 100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절대역과 차이역의 정의, 그리고 두 개념이 모두 50% 탐지 확률을 기준으로 한다는 점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절대역은 특정 자극이 존재한다는 것을 50%의 확률로 알아차릴 수 있게 하는 최소 자극 강도이다. 결정 차이축은 자극의 존재를 느끼는 최소 수준이라는 점이다. 키워드는 최소 자극 강도이다.
차이역은 두 자극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50%의 확률로 구별하게 하는 최소 차이이다. 결정 차이축은 두 자극의 차이를 구별하는 최소 변화량이라는 점이다. 키워드는 최소 차이이다.
상대역은 차이 그 자체보다 차이의 비율이나 비례 관계를 강조할 때 연결되는 개념이므로, 두 자극이 다름을 처음 탐지하는 정의와 그대로 대응하지 않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의 절대역은 특정 자극을 탐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자극 강도이고, ㄴ과 ㄹ은 모두 50%가 맞다. ㄷ의 차이역도 두 자극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50% 확률로 탐지하는 최소 차이이므로 연결이 정확하다.

② X
틀린 부분은 ㄷ의 상대역이다.
두 자극의 강도가 다르다는 것을 알아차리는 최소한의 차이는 차이역이다. 올바르게는 절대역-50-차이역-50이다.

③ X
틀린 부분은 ㄴ의 100이다.
절대역은 자극을 항상 느끼는 100% 기준이 아니라 50% 확률로 탐지하는 최소 강도이다. 올바르게는 ㄴ이 50이어야 한다.

④ X
틀린 부분은 ㄱ의 상대역과 ㄹ의 100이다.
특정 자극을 처음 탐지하는 개념은 상대역이 아니라 절대역이고, 차이역도 100%가 아니라 50% 확률 기준이다. 올바르게는 ㄱ이 절대역, ㄹ이 50이어야 한다.

오답 포인트

절대역과 차이역은 모두 감각의 문턱을 다루기 때문에 학생이 자극의 존재를 느끼는지, 두 자극의 차이를 구별하는지를 섞어서 보기 쉽다. 특히 ③과 ④처럼 100%를 넣으면 문턱 개념을 확실한 탐지 개념으로 잘못 바꾼 함정에 걸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에 특정 자극을 느끼는 최소 강도라고 나오면 절대역으로 판단한다. 두 자극의 차이를 알아차리는 최소 차이라고 나오면 차이역으로 판단한다. 두 개념 모두 기본 기준 확률은 50%로 정리된다.

암기 포인트

절대역은 자극의 존재를 50%에서 느끼는 최소 강도이고, 차이역은 차이를 50%에서 느끼는 최소 변화이다.

NoteBase

문 9. 계열위치 효과가 나타나는 단어목록에 대한 자유회상(free recall) 실험에 대한 '참'과 '거짓' 판단을 바르게 연결한 것은?

(가) 단어목록의 단어들이 제시된 순서에 맞게 차례로 회상하도록 요구한다.
(나) 단어목록이 제시된 직후 단어들에 대한 회상을 요구할 경우, 일반적으로 중간 부분에 제시된 단어들보다는 마지막 부분에 제시된 단어들에 대한 회상률이 높다.
(다) 단어목록의 제시가 종료된 이후 자유회상이 20~30초 정도 지연되면 초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① (가): 참, (나): 거짓, (다): 거짓
② (가): 거짓, (나): 참, (다): 참
③ (가): 거짓, (나): 참, (다): 거짓
④ (가): 참, (나): 거짓, (다): 참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자유회상에서 나타나는 계열위치 효과, 특히 초두효과와 최신효과의 의미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자유회상은 제시된 단어를 순서와 무관하게 떠오르는 대로 회상하는 과제이다.
계열위치 효과는 목록의 처음과 끝에 있는 항목이 중간 항목보다 더 잘 기억되는 현상이다.
초두효과는 처음 제시된 단어들이 반복 시연을 더 많이 받아 장기기억에 잘 저장되는 현상이고, 최신효과는 방금 제시된 마지막 단어들이 단기기억에 남아 잘 회상되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가)는 틀리고 (나)는 맞고 (다)는 틀리므로 조합이 맞지 않는다. (가)에서 틀린 표현은 "제시된 순서에 맞게 차례로 회상"이다. 자유회상은 순서대로 말하는 과제가 아니라 떠오르는 대로 회상하는 과제이다. (다)에서 틀린 표현은 "초두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이다. 20~30초 지연으로 약화되는 것은 최신효과이며, 초두효과는 일반적으로 유지된다.
2번 X: (가)는 거짓, (나)는 참이지만 (다)도 참으로 본 점이 틀리다. (다)는 지연 뒤에 사라지는 효과를 초두효과로 바꾸어 놓은 오류이다. 올바르게는 "자유회상이 20~30초 정도 지연되면 최신효과가 약화되거나 사라진다"이다.
3번 O: (가) 거짓, (나) 참, (다) 거짓의 연결이 맞다. 자유회상은 순서회상이 아니고, 즉시 회상에서는 마지막 단어의 회상률이 중간보다 높으며, 짧은 지연은 최신효과를 없애도 초두효과는 남는다.
4번 X: (나)는 참이지만 (가)를 참, (다)를 참으로 본 점이 틀리다. 올바르게는 "(가) 자유회상은 제시 순서를 강제하지 않는다"이고, "(다) 지연되면 초두효과가 아니라 최신효과가 줄어든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자유회상을 순서회상과 혼동하거나, 지연 후 사라지는 효과를 최신효과가 아니라 초두효과로 바꾸어 기억하면 2번이나 4번으로 흔들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함정은 "차례로"와 "초두효과"라는 단어 바꾸기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자유회상인지 순서회상인지부터 구분한다. 그다음 즉시 회상이면 끝부분 우세는 최신효과, 지연 후에도 비교적 남는 처음 부분 우세는 초두효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자유회상은 순서 자유, 목록 끝은 최신효과, 지연에 약한 것도 최신효과이다.

NoteBase

문 10. 다음 특징을 보이는 성격장애 유형은?

◯ 타인에 대한 만연된 의심과 불신을 갖는다.
◯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 적대감을 가진다고 생각한다.
◯ 불편한 상황에서 감정조절에 어려움을 보인다.

① 강박성
② 편집성
③ 자기애성
④ 반사회성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성격장애 유형의 핵심 특징을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편집성 성격장애는 타인의 동기를 악의적으로 해석하며 지속적인 의심과 불신을 보이는 유형이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질서정연함, 완벽주의, 통제에 과도하게 집착하는 유형이다.
자기애성 성격장애는 과대감, 찬사 욕구, 공감 부족이 중심인 유형이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타인의 권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거나 침해하는 유형이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표현은 '강박성'이다. 제시문은 타인에 대한 만연된 의심, 적대감 추정, 불신을 말하므로 강박성 성격장애가 아니라 편집성 성격장애에 해당한다. 강박성 성격장애는 실제로는 완벽주의와 통제 집착이 핵심이다.
2번 O: 편집성 성격장애는 타인이 자신을 해치거나 속이려 한다고 해석하기 쉽고, 근거 없이 적개심을 품는다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제시된 세 특징은 모두 이러한 지속적 의심과 불신에 부합한다.
3번 X: 틀린 표현은 '자기애성'이다. 자기애성 성격장애의 핵심은 자신이 특별하다는 과대감, 찬사 요구, 공감 부족이지 타인에 대한 만성적 의심이 아니다. 올바르게는 편집성 성격장애이다.
4번 X: 틀린 표현은 '반사회성'이다. 반사회성 성격장애는 거짓말, 충동성, 공격성, 무책임처럼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동이 중심이다. 제시문처럼 타인의 적대 의도를 의심하는 양상은 반사회성이 아니라 편집성 성격장애에 가깝다.

오답 포인트

자기애성의 '타인이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민감성과 편집성의 '타인이 나를 해치려 한다'는 의심을 섞으면 틀리기 쉽다. 반사회성은 행동의 문제이고, 편집성은 해석과 신뢰의 문제라는 점을 구분해야 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나 제시문에서 핵심 단어가 의심, 불신, 적대적 해석이면 편집성을 먼저 본다. 완벽주의와 통제는 강박성, 과대감과 찬사 욕구는 자기애성, 권리 침해와 충동성은 반사회성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편집성은 사람을 믿지 못하고, 강박성은 질서를 놓지 못하며, 자기애성은 자신을 과대평가하고, 반사회성은 타인의 권리를 무시한다.

NoteBase

문 11. “죄책감은 사람들이 손을 씻고 싶은 욕구를 증가시킨다.”라는 가설의 변인 간 인과관계를 가장 타당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심리학 연구방법은?

① 실험연구
② 상관연구
③ 자연관찰
④ 사례연구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심리학 연구방법 가운데 변인을 통제하고 조작하여 인과관계를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실험연구는 독립변인을 조작하고 다른 조건을 통제하여 종속변인의 변화를 비교함으로써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방법이다.
상관연구는 두 변인이 함께 변하는 정도를 살피는 방법이므로 관련성은 보여 주지만 인과성은 확정하지 못한다.
자연관찰은 행동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방법이어서 생태적 타당성은 높을 수 있지만 변인 조작과 통제가 어렵다.
사례연구는 한 개인이나 소수를 깊이 있게 분석하는 방법이어서 현상 이해에는 유용하지만 일반화와 인과검증에는 한계가 있다.

선지별 해설

① O: 실험연구는 죄책감을 유발하거나 조작한 뒤 손을 씻고 싶은 욕구의 변화를 비교할 수 있으므로 가설의 변인 간 인과관계를 가장 타당하게 검증할 수 있다.
② X: 상관연구는 두 변인의 관련성은 확인할 수 있지만 어느 변인이 원인인지 밝히지 못한다. 틀린 표현은 인과관계를 가장 타당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올바르게는 변인 간 상관 정도를 파악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③ X: 자연관찰은 일상 장면에서 행동을 관찰하는 방법이므로 변인을 직접 조작하거나 외생변인을 통제하기 어렵다. 틀린 표현은 인과관계 검증에 가장 타당하다는 취지이다. 올바르게는 자연스러운 행동 양상을 관찰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④ X: 사례연구는 특정 개인이나 집단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 방법이므로 가설을 정교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일반적 인과관계를 검증하는 데는 부적절하다. 틀린 표현은 가설의 인과관계를 가장 타당하게 검증할 수 있다는 취지이다. 올바르게는 개별 사례를 깊이 분석하는 데 적합한 방법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상관연구, 자연관찰, 사례연구도 모두 연구방법이라는 점 때문에 헷갈리기 쉽지만, 이 문항의 핵심 단어는 인과관계이다. 인과관계를 묻는 순간 변인 조작과 통제가 가능한 실험연구가 우선 떠올라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연구방법 문제에서 관련성, 관찰, 심층이 아니라 원인과 결과를 검증하는지를 먼저 본다. 독립변인을 조작하고 다른 조건을 통제할 수 있으면 실험연구이고, 그때 인과추론이 가능하다.

암기 포인트

인과관계는 실험연구, 관련성은 상관연구, 자연스러운 행동은 자연관찰, 깊이 있는 이해는 사례연구이다.

NoteBase

문 12. ㉠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서 경험과 (㉠)의 연관성과 선후관계는 인간 정서에 관한 초기 연구부터 주요 관심사였다. 제임스-랑게 이론에서는 자극으로 유발된 (㉠)이(가) 이후 정서 경험을 일으킨다고 보았고, 캐논-바드 이론에서는 (㉠)와(과) 정서 경험이 동시에 발생한다고 보았다.

① 상향처리

② 초자아

③ 애착형성

④ 신체적 변화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제임스-랑게 이론과 캐넌-바드 이론이 공통으로 다루는 신체적 변화와 정서 경험의 관계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제임스-랑게 이론: 자극이 먼저 심박 증가, 떨림, 발한 같은 신체적 변화를 일으키고, 그 변화를 지각한 뒤 정서가 생긴다고 본다. 결정 차이축은 신체적 변화가 정서보다 먼저 오느냐이다.
캐넌-바드 이론: 자극이 들어오면 신체적 변화와 정서 경험이 동시에 일어난다고 본다. 결정 차이축은 신체적 변화와 정서의 동시 발생 여부이다.
신체적 변화: 정서와 연결되는 생리적 각성 반응을 뜻하며, 두 이론 모두 이 반응과 정서의 관계를 설명 대상으로 삼는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상황처리는 틀린 표현이다.
실제로는 두 이론 모두 정서 경험과 신체적 변화의 선후관계 또는 동시성을 설명한다.

② X
초자아는 틀린 표현이다.
초자아는 정신분석 이론의 성격 구조 개념으로, 정서 이론에서 제임스-랑게와 캐넌-바드가 공통으로 다루는 대상이 아니다.

③ X
애착형성은 틀린 표현이다.
애착형성은 발달심리학의 애착 이론과 관련된 개념이며, 제임스-랑게와 캐넌-바드의 비교 축은 애착이 아니라 신체적 변화와 정서의 관계이다.

④ O
신체적 변화는 맞는 표현이다.
제임스-랑게 이론은 자극으로 유발된 신체적 변화가 먼저 일어나고 그 뒤에 정서 경험이 생긴다고 보고,
캐넌-바드 이론은 신체적 변화와 정서 경험이 동시에 생긴다고 본다.

오답 포인트

제임스-랑게와 캐넌-바드가 모두 정서 발생 과정을 설명한다는 점만 기억하고 있으면 ① 같은 포괄적 표현에 흔들리기 쉽다. 이 문항의 핵심은 두 이론이 공통으로 붙잡는 대상이 무엇이냐이며, 그 대상은 인지적 상황처리나 성격 구조가 아니라 생리적 반응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제임스-랑게와 캐넌-바드가 나오면 먼저 공통 키워드를 신체적 변화로 잡고, 차이는 순서에서 찾는다.
제임스-랑게는 신체 먼저 후 정서, 캐넌-바드는 신체와 정서 동시라는 기준으로 판단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제임스-랑게는 신체 먼저, 캐넌-바드는 신체와 정서 동시이다.

NoteBase

문 13. 청각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음의 고저를 구별하는 능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장소 이론과 주파수 이론이 모두 필요하다.

② 인간의 청각기관이 반응하는 가청 주파수 범위는 약 20 ~ 20,000 Hz이다.

③ 청각 자극인 소리에 반응하는 청각 수용기 세포는 전정기관에 분포한다.

④ 음파의 진폭에 의해 소리의 강약이 결정되는데, 보통의 대화 소리는 약 60 dB 정도이다.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청각의 기본 속성인 음고, 가청 주파수, 청각 수용기의 위치, 음파 진폭과 강도의 대응을 구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장소 이론은 기저막의 어느 위치가 가장 크게 진동하는가로 음고를 설명하는 이론이고, 주파수 이론은 청신경의 발화율이 소리 주파수를 따라간다는 점으로 음고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청각 수용기 세포는 달팽이관의 코르티 기관에 분포하고, 전정기관은 몸의 평형과 위치 변화를 감지한다.
음파의 진폭은 소리의 강도와 연결되고, 주파수는 소리의 높낮이와 연결된다.

선지별 해설

1번 O: 음의 고저, 즉 음고 지각은 하나의 이론만으로 전 범위를 설명하기 어렵다. 높은 주파수 영역은 장소 이론이, 낮은 주파수 영역은 주파수 이론이 더 잘 설명하므로 두 이론이 함께 필요하다는 진술은 옳다.
2번 O: 인간의 가청 범위는 일반적으로 약 20Hz에서 20,000Hz이다. 청각기관이 반응하는 주파수 범위를 묻는 기본 진술로 맞다.
3번 X: 틀린 부분은 '전정기관에 분포한다'이다. 청각 자극인 소리에 반응하는 수용기 세포는 전정기관이 아니라 달팽이관의 코르티 기관에 분포한다. 전정기관은 평형감각을 담당한다.
4번 O: 음파의 진폭이 커질수록 지각되는 소리의 강도도 커진다. 보통의 대화 소리가 약 60dB 정도라는 설명도 일반적인 기준과 맞는다.

오답 포인트

전정기관과 달팽이관을 모두 내이 구조라는 이유로 같은 기능으로 묶으면 3번에 속는다. 출제자는 청각기관과 평형기관의 위치가 가깝다는 점을 이용해 수용기 위치를 바꿔 놓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청각 문제는 먼저 주파수는 음고, 진폭은 강도라는 대응을 확인하고, 이어서 달팽이관은 청각, 전정기관은 평형이라는 기관 기능을 대조하면 빠르게 판단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달팽이관은 듣기, 전정기관은 균형, 주파수는 높낮이, 진폭은 크기이다.

NoteBase

문 14. 다음 A 연구자가 B 연구자보다 고려해야 하는 발달연구 방법의 단점을 모두 고른 것은?

아동의 사회인지의 발달을 알아보기 위해 만 3세, 4세, 5세 때의 조망 수용 능력을 비교하려고 한다.
A 연구자: 만 3세, 4세, 5세 아동 각각 100명씩을 표집하여 조망 과제 수행을 한꺼번에 측정한다.
B 연구자: 만 3세 아동 100명을 표집하여 한 차례 조망 과제 측정을 하고, 후에 이들이 만 4세가 될 때와 5세가 될 때 두 번 더 재측정하여, 총 3회 측정한다.

ㄱ.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
ㄴ. 아동 참가자들에게 연습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ㄷ. 개인의 발달적 변화에 대해 알 수 없다.
ㄹ. 아동 참가자들의 선택적 탈락으로 인해 표본 집단의 대표성이 떨어질 수 있다.
ㅁ. 동시대 집단효과(cohort effect)가 결과에 혼입될 수 있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ㄷ, ㅁ
④ ㄷ, ㄹ, ㅁ

정답 3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횡단연구와 종단연구의 장단점을 구분하여 A 연구자가 B 연구자보다 더 크게 고려해야 하는 단점을 찾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A 연구는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을 한 시점에 비교하는 횡단연구이다 / 결정 차이축: 같은 개인을 시간에 따라 추적하는지 여부 / 키워드: 한 시점, 연령집단 비교, 동시대 집단효과
B 연구는 같은 아동을 여러 시점에 반복 측정하는 종단연구이다 / 결정 차이축: 동일 개인의 발달 변화를 직접 추적하는지 여부 / 키워드: 반복측정, 연습효과, 선택적 탈락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 ①은 ㄱ, ㄷ의 조합이다.
- ㄷ의 '개인의 발달적 변화에 대해 알 수 없다'는 횡단연구의 단점이므로 맞다.
- 그러나 ㄱ의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같은 참여자를 여러 해 추적하는 종단연구의 단점이다.
- 틀린 표현은 ㄱ을 A 연구자의 단점으로 넣은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A 연구자의 단점은 ㄷ, ㅁ이다.

② X
- ②는 ㄴ, ㄹ의 조합이다.
- ㄴ의 '연습효과'와 ㄹ의 '선택적 탈락'은 모두 같은 참여자를 반복 측정할 때 커지는 종단연구의 단점이다.
- 틀린 표현은 두 진술을 A 연구자의 단점으로 본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두 진술은 B 연구자가 더 고려해야 한다.

③ O
- ③은 ㄷ, ㅁ의 조합이다.
- ㄷ은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을 한 번만 비교하면 같은 아동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 직접 추적할 수 없다는 뜻이므로 맞다.
- ㅁ은 만 3세, 4세, 5세 집단이 서로 다른 출생 코호트이므로 연령 차이 외에 세대 경험 차이가 결과에 섞일 수 있다는 뜻이어서 맞다.

④ X
- ④는 ㄷ, ㄹ, ㅁ의 조합이다.
- ㄷ과 ㅁ은 횡단연구의 단점이지만, ㄹ의 '선택적 탈락'은 장기간 추적 과정에서 일부 참여자가 빠지는 종단연구의 단점이다.
- 틀린 표현은 ㄹ을 포함한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ㄹ을 제외한 ㄷ, ㅁ만 남아야 한다.

오답 포인트

횡단연구와 종단연구의 단점을 뒤섞으면 오답이 된다. 같은 사람을 여러 번 재면 연습효과와 선택적 탈락이 생기고, 다른 연령 집단을 한 번에 비교하면 개인 내 변화는 알기 어렵고 동시대 집단효과가 섞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같은 개인을 시간에 따라 추적하는 연구인지, 서로 다른 연령 집단을 한 번에 비교하는 연구인지 구분하면 된다. 같은 개인 반복측정이면 비용·시간, 연습효과, 탈락을 떠올리고, 다른 집단 동시 비교이면 개인 변화 파악의 한계와 동시대 집단효과를 연결하면 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종단은 같은 사람을 오래 본다. 그래서 연습효과와 선택적 탈락이 따른다. 횡단은 다른 연령을 한 번에 본다. 그래서 개인 변화는 직접 못 보고 동시대 집단효과가 섞일 수 있다.

NoteBase

문 15. A의 태도를 가장 잘 설명하는 개념은?

초등학생인 A는 “부모님께서 우리에게 스마트폰 사용을 당장 허락해야 한다.”라는 친구들의 의견에 공개적으로 동의했다. 그러나 방과 후 학원에 가서는 “최소한 중학생은 된 후에 스마트폰을 사용해야 한다.”라는 중학생 선배들의 발언에 맞장구를 쳤다.

① 몰개인화
② 규범적 사회영향
③ 정보적 사회영향
④ 습관화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타인의 기대에 맞추어 태도를 공개적으로 바꾸는 규범적 사회영향과, 타인의 판단을 더 정확한 정보로 받아들이는 정보적 사회영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규범적 사회영향은 집단의 수용과 승인을 얻기 위해 겉으로 동조하는 현상이다.
정보적 사회영향은 타인이 더 정확하다고 보아 그 판단을 사실 판단의 근거로 받아들이는 현상이다.
몰개인화는 익명성이 커진 집단 상황에서 자기통제와 자기인식이 약해지는 상태이다.
습관화는 같은 자극이 반복될수록 반응이 점차 감소하는 현상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몰개인화는 군중 속 익명성 때문에 자기인식과 책임감이 낮아지는 현상이다. 이 사례의 핵심은 익명성이나 충동행동이 아니라 주변 집단의 기대에 맞춘 태도 변화이다. 틀린 표현은 '몰개인화'이다. 올바르게는 '규범적 사회영향'이다.
② O: A는 친구들 앞에서는 친구들 의견에, 중학생 선배들 앞에서는 선배들 의견에 맞추어 공개적으로 동조하였다. 태도의 방향이 상황마다 달라진 점은 사실 판단보다 사회적 승인과 소속 욕구가 작동했음을 보여 주므로 규범적 사회영향이 맞다.
③ X: 정보적 사회영향은 타인이 더 옳거나 더 잘 안다고 보아 그 판단을 내면화하는 경우이다. 그러나 A는 누구 말이 더 정확한지 검토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함께 있는 집단에 맞장구쳤다. 틀린 표현은 '정보적'이다. 올바르게는 '규범적 사회영향'이다.
④ X: 습관화는 같은 자극이 반복될수록 반응이 약해지는 현상이다. 이 사례는 자극 반복에 둔감해진 것이 아니라 사회적 상황에 따라 의견을 맞춘 것이다. 틀린 표현은 '습관화'이다. 올바르게는 '규범적 사회영향'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중학생 선배의 말이 더 경험 있어 보인다는 이유만으로 ③ 정보적 사회영향으로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진짜 정보적 사회영향이라면 더 정확하다고 믿는 쪽으로 판단이 안정되게 수렴해야 한다. 이 문항의 A는 누구 앞에 있느냐에 따라 의견을 바꾸므로 사회적 승인 욕구가 핵심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의견이 집단의 승인과 관계 유지를 위해 공개적으로 바뀌면 규범적 사회영향이다. 타인을 더 정확한 정보원으로 믿어 판단 자체를 받아들이면 정보적 사회영향이다.

암기 포인트

인정받으려고 맞추면 규범적, 맞다고 믿고 따르면 정보적이다.

NoteBase

문 16. 빈칸에 알맞은 말은?

행위자-관찰자 효과(actor-observer effect)는 우리가 행위자일 때는 (㉠) 귀인을 하도록 만들고 관찰자일 때는 (㉡) 귀인을 하도록 만든다.

① ㉠: 상황적, ㉡: 성향적

② ㉠: 성향적, ㉡: 상황적

③ ㉠: 주관적, ㉡: 객관적

④ ㉠: 객관적, ㉡: 주관적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행위자-관찰자 효과에서 행위자와 관찰자가 각각 어떤 방식으로 귀인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행위자-관찰자 효과는 같은 행동이라도 내가 행동한 경우에는 외부 상황 탓으로, 다른 사람이 행동한 경우에는 그 사람의 성향 탓으로 더 쉽게 설명하는 귀인 편향이다.
상황적 귀인은 행동 원인을 환경, 과제, 압력 같은 외부 조건에서 찾는 설명이다. 키워드는 외부 상황이다.
성향적 귀인은 행동 원인을 성격, 태도, 능력 같은 개인 내부 특성에서 찾는 설명이다. 키워드는 개인 특성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행위자일 때는 자신의 행동 원인을 외부 상황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고, 관찰자일 때는 타인의 행동 원인을 그 사람의 성향에서 찾는 경향이 강하므로 옳다.

② X
- 틀린 부분은 "ㄱ 성향적, ㄴ 상황적"이다.
- 실제로는 ㄱ이 상황적 귀인이고 ㄴ이 성향적 귀인이다.

③ X
- 틀린 부분은 "ㄱ 주관적, ㄴ 객관적"이다.
- 이 효과의 핵심 구분은 주관적·객관적이 아니라 외부 상황 귀인과 내부 성향 귀인의 대비이다.

④ X
- 틀린 부분은 "ㄱ 객관적, ㄴ 주관적"이다.
- 실제로는 ㄱ이 상황적 귀인이고 ㄴ이 성향적 귀인이다. 객관적·주관적이라는 표현은 이 이론의 정답 기준이 아니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행위자-관찰자 효과는 행위자와 관찰자의 방향을 서로 바꿔 외우기 쉽다. 또 성향적 귀인과 상황적 귀인을 주관적·객관적 같은 일상어로 바꾸어 생각하면 선택지 ③, ④에 끌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행위자와 관찰자가 보이면 먼저 귀인 원인이 사람 밖의 상황인지 사람 안의 성향인지를 가른다. 그다음 행위자는 상황적 귀인, 관찰자는 성향적 귀인으로 대응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내 행동은 상황 탓, 남의 행동은 성향 탓이라는 대비가 행위자-관찰자 효과의 핵심이다.

NoteBase

문 17. 성격 이론에 대한 설명으로 연결이 바르지 않은 것은?

① 정신역동적 이론 - 프로이드는 생애 초기 경험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무의식적 마음의 존재, 자기 보호적인 방어기제에 초점을 맞추었다.

② 인본주의 이론 - 심리학의 관심을 무의식적 욕구와 갈등에서 벗어나 성장잠재력을 향하도록 시도하면서 자기 결정과 자기실현을 추구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③ 행동주의 이론 - 성격에서 개인차보다는 강화물에 반응하는 인간의 보편적 원리를 찾는 데 관심을 가졌다.

④ 특질 이론 - 요인분석 방법을 적용하여 성격의 기본 특질들을 설정했지만, 특질의 생물학적 관련성을 배제하였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항은 성격 이론별 핵심 키워드가 어떤 설명과 연결되는지를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정신역동적 이론은 초기 경험, 무의식, 방어기제를 통해 성격을 설명한다.
인본주의 이론은 성장잠재력, 자기결정, 자기실현을 중시한다.
행동주의 이론은 관찰 가능한 행동과 학습, 강화의 원리로 성격을 본다.
특질 이론은 비교적 안정된 성격 차원을 찾고 요인분석으로 기본 특질을 정리하며, 일부 이론은 생물학적 기초도 함께 설명한다.

선지별 해설

① O: 프로이트의 정신역동적 이론은 생애 초기 경험의 중요성, 무의식의 존재, 자아를 보호하는 방어기제를 핵심으로 본다.
② O: 인본주의 이론은 무의식적 갈등보다 인간의 성장잠재력, 자기결정, 자기실현에 초점을 둔다.
③ O: 행동주의 이론은 개인차의 내면 구조보다 학습과 강화에 의해 형성되는 보편적 행동 원리를 중시한다.
④ X: 틀린 표현은 '특질의 생물학적 관련성을 배제하였다'이다. 올바르게는 특질 이론은 요인분석으로 성격 차원을 찾았고, 특히 아이젠크와 같은 입장은 특질의 생물학적 기초를 적극적으로 연결하였다.

오답 포인트

④는 '요인분석'이라는 통계적 방법만 강조한 뒤 '생물학적 관련성 배제'를 붙여 그럴듯하게 만든 선지이다.
그러나 특질 이론은 통계적 분류에만 머무르지 않고 기질이나 각성 수준처럼 생물학적 설명과도 연결되는 흐름이 있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성격 이론 연결 문제는 이론명보다 핵심 단서를 먼저 잡아 판단한다. 무의식·방어기제는 정신역동, 성장·자기실현은 인본주의, 강화는 행동주의, 요인분석·안정된 차원·생물학적 기초는 특질 이론으로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프로이트는 무의식, 인본주의는 자기실현, 행동주의는 강화, 특질 이론은 요인분석과 생물학적 기초로 정리된다.

NoteBase

문 18. 다음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은?

"40만 원을 받을 가능성이 80%인 기회와 30만 원을 확실히 받을 기회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라는 질문에 대부분 사람은 후자를 선택한다고 한다.

① 기대 가치 이론
② 전망 이론
③ 합리적 선택 이론
④ 본보기 이론

정답 2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기대값이 더 큰 선택지가 있어도 사람들이 확실한 이익을 더 선호하는 현상을 어떤 이론이 설명하는지를 묻는다.

핵심 정리

기대 가치 이론: 각 결과의 가치와 확률을 곱한 기대값을 비교하는 이론이다.
전망 이론: 사람은 확률을 있는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이득 영역에서는 확실한 이익을 더 크게 느껴 위험회피를 보인다고 본다.
합리적 선택 이론: 주어진 선호 아래 효용을 극대화한다고 가정하는 일반적인 선택 틀이다.
본보기 이론: 범주를 판단할 때 저장된 구체적 사례와의 유사성을 활용한다고 보는 범주화 이론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기대 가치 이론으로 보면 40만 원을 받을 가능성 80%의 기대값은 32만 원이므로 30만 원을 확실히 받는 선택보다 전자가 더 유리하다. 틀린 표현은 '대부분 사람이 후자를 택하는 현상'을 기대 가치 이론으로 설명하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기대 가치 이론은 전자를 더 낫다고 예측한다.
② O: 전망 이론은 이득 상황에서 사람들은 확실한 이익을 과대평가하여 위험을 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따라서 40만 원의 80% 가능성보다 30만 원의 확실한 획득을 고르는 다수의 선택을 가장 잘 설명한다.
③ X: 합리적 선택 이론은 선택 전반을 설명하는 넓은 틀이지, 확실성 때문에 다수가 기대값이 더 작은 쪽을 고르는 심리적 편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이론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이 현상을 가장 잘 설명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이 문항의 선택 패턴은 전망 이론으로 설명한다.
④ X: 본보기 이론은 범주화와 개념 판단에서 구체적 사례를 비교 기준으로 삼는 이론이다. 틀린 표현은 '위험 선택에서 확실한 이익 선호를 설명한다'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본보기 이론은 범주 판단을 설명하고, 이 문항의 선택 현상은 전망 이론이 설명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기대값이 32만 원으로 더 크다는 계산만 보고 ①을 고르기 쉽다. 그러나 이 문항은 규범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가 아니라 실제 사람들이 어떻게 선택하는가를 묻기 때문에, '확실한 이익 선호'라는 심리적 왜곡을 떠올려야 한다. ③도 '합리적'이라는 표현 때문에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 문항의 핵심은 일반 합리성보다 확실성 효과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기대값이 더 큰 불확실한 이익보다 기대값이 조금 작아도 확실한 이익을 사람들이 더 많이 택하는 상황이면 전망 이론, 그중에서도 확실성 효과와 이득 영역의 위험회피를 먼저 연결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전망 이론은 이득 영역에서 확실한 이익을 더 크게 느껴 위험회피가 나타난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NoteBase

문 19. 기억의 처리수준 모형과 가장 관련이 깊은 것은?

① 자전거 타기는 어린 시절에 배울수록 오래 기억된다.

② 암송을 많이 하면, 기억이 잘된다.

③ 이전에 잘 알고 지내던 사람을 오랜만에 만났을 때 그 사람의 이름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

④ 주어진 정보가 맥락이나 상황에 부합하는지 생각하면서 그 정보를 부호화한다.

정답 4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처리수준 모형이 강조하는 깊은 의미처리와 단순 반복, 절차기억, 인출실패를 구별하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처리수준 모형: 기억은 반복 횟수보다 정보를 얼마나 의미 있게 깊게 처리했는지에 따라 오래 유지된다는 이론이다. 결정 차이축: 얕은 처리와 깊은 처리 / 키워드: 의미처리, 정교화, 맥락.
유지시연: 정보를 소리나 형태 수준에서 되풀이하는 얕은 처리이다. 결정 차이축: 반복 자체인가 의미 분석인가 / 키워드: 암송, 단순 반복.
절차기억: 자전거 타기처럼 몸으로 익힌 기술 기억이다. 결정 차이축: 기억 내용이 기술인가 의미 분석인가 / 키워드: 기술, 암묵기억.
인출실패: 저장된 정보가 있어도 단서가 부족해 순간적으로 떠오르지 않는 현상이다. 결정 차이축: 저장의 깊이 문제인가 꺼내기 문제인가 / 키워드: 이름이 안 떠오름, 설단현상.

선지별 해설

① X: 자전거 타기는 대표적인 절차기억으로, 언제 배웠는가나 기술이 자동화되었는가와 관련이 크다. 처리수준 모형은 어린 시절 학습 여부가 아니라 부호화할 때 의미를 얼마나 깊게 처리했는지를 본다. 틀린 표현은 '어린 시절에 배울수록 오래 기억된다'이다. 올바르게는 '의미를 깊게 처리할수록 오래 기억된다'이다.
② X: 암송을 많이 하는 것은 대체로 유지시연에 해당하므로 기억이 반드시 잘되는 것은 아니다. 처리수준 모형은 반복량보다 의미 분석과 정교화가 장기기억을 높인다고 본다. 틀린 표현은 '암송을 많이 하면, 기억이 잘된다'이다. 올바르게는 '의미 있게 정교화하며 부호화할수록 기억이 잘된다'이다.
③ X: 오랜만에 만난 사람의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는 것은 저장된 정보를 바로 인출하지 못하는 인출실패 현상에 가깝다. 이는 처리수준 모형이 설명하는 깊은 부호화의 사례가 아니다. 틀린 표현은 '이름이 쉽게 떠오르지 않는다'를 처리수준 모형과 연결하는 부분이다. 올바르게는 '이 사례는 인출실패 또는 설단현상과 관련이 있다'이다.
④ O: 주어진 정보가 맥락이나 상황에 맞는지 생각하면서 부호화하는 것은 의미를 따지고 다른 정보와 연결하는 깊은 처리이다. 처리수준 모형과 가장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의 '많이 하면'이라는 표현 때문에 반복량이 많으면 기억도 좋아진다고 오해하기 쉽다. 그러나 처리수준 모형은 반복 횟수보다 의미처리의 깊이를 본다. ①과 ③도 모두 기억 현상이기는 하지만, 하나는 절차기억이고 다른 하나는 인출실패이므로 부호화 깊이를 묻는 이 문항의 정답이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선지에 의미, 맥락, 관계짓기, 정교화가 나오면 처리수준 모형과 가깝다고 본다. 반대로 단순 반복, 기술 습득, 이름이 안 떠오름처럼 반복량이나 기억 종류, 인출 문제를 말하면 다른 기억 개념으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처리수준 모형은 많이 반복했는가보다 얼마나 의미 있게 처리했는가를 본다.

NoteBase

문 20. 스키너(B. F. Skinner)가 제안한 강화계획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고정간격(fixed interval)은 이전 강화물이 제공된 후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반응과 관계없이 다음 강화물이 제공된다.

② 변동간격(variable interval)은 강화물을 받은 반응과 그 다음 강화물을 받게 되는 반응 사이의 시간 간격이 가변적이다.

③ 고정비율(fixed ratio)은 이전 강화물이 제공된 후 일정 빈도의 반응이 나타난 후에 다음 강화물이 제공된다.

④ 변동비율(variable ratio)은 이전 강화물이 제공된 후 다음 강화물이 제공되는 데 필요한 반응의 빈도가 가변적이다.

정답 1번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스키너의 강화계획을 시간 기준인지 반응 수 기준인지, 그리고 고정인지 변동인지로 구분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핵심 개념

고정간격은 일정한 시간이 지난 뒤 처음 나타나는 반응을 강화하는 계획이다. 시간 경과가 기준이지만 강화가 주어지려면 반응이 필요하다.
변동간격은 강화가 가능해지기까지의 시간 간격이 가변적인 계획이다. 시간 기준이지만 간격이 일정하지 않다.
고정비율은 일정한 횟수의 반응이 나온 뒤 강화하는 계획이다. 반응 수가 기준이고 요구량이 고정된다.
변동비율은 강화까지 필요한 반응 수가 가변적인 계획이다. 반응 수가 기준이고 요구량이 예측 불가능하게 바뀐다.

선지별 해설

1번: X. 틀린 부분은 "반응과 관계없이"이다. 고정간격은 이전 강화 뒤 일정 시간이 지난 다음 나타나는 첫 반응을 강화한다. 올바르게는 일정 시간이 지난 뒤의 반응에 강화가 주어진다고 고쳐야 한다.
2번: O. 변동간격은 한 번 강화된 뒤 다음 강화가 가능해지기까지의 시간이 들쭉날쭉한 계획이므로 시간 간격이 가변적이라는 설명이 맞다.
3번: O. 고정비율은 이전 강화 뒤 일정한 수의 반응이 누적되면 다음 강화가 주어지는 계획이므로 일정 빈도의 반응 뒤 강화가 제공된다는 설명이 맞다.
4번: O. 변동비율은 다음 강화를 받기 위해 필요한 반응 수가 일정하지 않은 계획이다. 선지의 취지는 강화까지 요구되는 반응량이 가변적이라는 뜻이므로 맞는 설명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고정간격을 "시간만 지나면 자동으로 강화가 주어지는 계획"으로 착각하면 1번에 속기 쉽다. 간격계획은 시간 기준이고, 비율계획은 반응 수 기준이라는 축을 먼저 잡아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강화의 기준이 시간인지 반응 수인지 구분한 뒤, 그 기준이 일정하면 고정이고 들쭉날쭉하면 변동이라고 판단한다. 간격계획은 시간이 지나도 반응이 있어야 강화가 주어진다는 점을 함께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간격은 시간, 비율은 반응 수, 고정은 일정, 변동은 가변이라는 틀로 정리하면 된다.

NoteBase